

# 統一新羅 下代 佛像의 二重着衣法 研究

주진령\*

- I. 머리말
- II. 佛衣의 의미와 二重着衣法의 성격
- III. 二重着衣法의 전개
- IV. 統一新羅 下代 二重着衣法의 유형
- V. 統一新羅 下代 二重着衣法의 특징
- VI. 맺음말

## I. 머리말

佛衣는 불상이 조성된 시대나 지역적인 특색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상의 양식과 도상 연구에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二重着衣法은 인도의 佛像이 중국과 한국 등에 전래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수용과 변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경주대학교 강사

\*\*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가운데 이중착의법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이 논문을 지도해주신 文明大 교수님과 심사를 맡아주신 金東賢 교수님과 張忠植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논문에 대해 아낌없는 지적과 관심을 가져주신 崔聖銀 교수님과 林玲愛 교수님께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이중착의법은 삼국시대부터 등장하여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상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신라 하대 불상의 착의법은 막연히 通肩 着衣法으로 인식되어 왔다.<sup>1</sup> 그래서 본 글에서는 통견으로 알려진 통일신라 하대 불상 가운데 이중착의법이 있음을 밝히고 그 유형분석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중착의법이 佛身의 양 어깨를 모두 가리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통견과 상통할 수도 있으나 두 장의 복제를 의도했다는 점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이 글에서는 불상에 보이는 대의와 그 안쪽에 보이는 복제의 명칭을 佛衣의 종류인 大衣와 上衣로 두고자 하며 그 명칭 즉 성격에 대해서는 II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 II. 佛衣의 의미와 二重着衣法の 성격

통일신라 하대 이중착의법을 다루기에 앞서 佛衣 의미를 정리하고 이중착의법을 이루는 佛衣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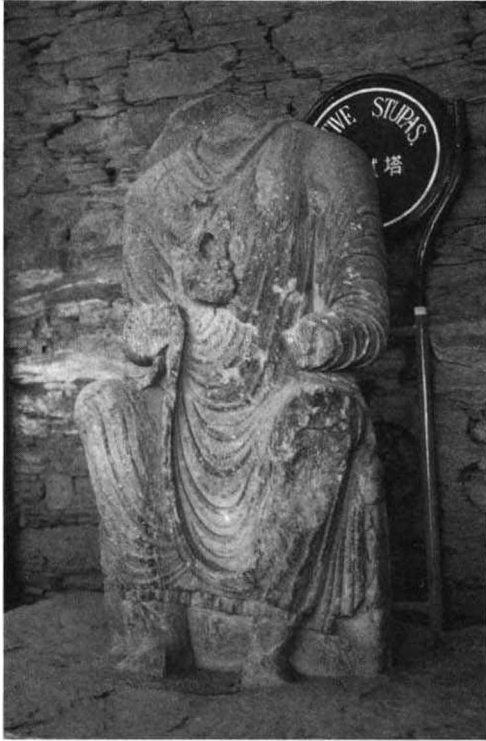
### 1. 佛衣의 의미<sup>2</sup>

佛衣는 불상의 의복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이지만, 원래 인도 出家者 복장으로 세

<sup>1</sup> 金理那는 「新羅 甘山寺如來式 佛像의 衣文과 日本 佛像과의 關係」에서 甘山寺 佛像 衣文을 중심으로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는데, 그 가운데 감산사여래상의 변형2·3·4형식의 기준을 법의 끝자락으로 삼았다. 통일신라 불상에서 법의 끝자락의 다양한 형태에 주목한 연구이다.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一潮閣, 1989), pp. 206-238. 이외에도 고려시대에는 입상과 좌상 모두에서 이중착의법을 볼 수 있으나 통일신라에는 불입상에서만 이중착의법을 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岩井共二, 「高麗後期の如來·菩薩の服制について: 僧祇支の形成を中心として」, 『高麗·李朝の佛教美術展』(山口縣立美術館, 1997), p. 116.

<sup>2</sup> 佛衣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하였다.

『望月大辭典』1·2·4(世界聖典刊行協會, 1933-1936); A. B. Griswold, "Prolegomena to the Study of the Buddha's Dress in Chinese Sculpture," *Artibus Asiae*, vol. 26, no.2 (1963), pp. 85-340; 逸見梅榮, 『佛像の研究』(東出版, 1970), pp. 328-344; 崔完秀, 「간다라佛衣考」, 『佛教美術』1(1973.9), pp. 76-116; 秋山昌海, 『佛像(裝飾·持物)大辭典』(國書刊行會, 1985), pp. 348-355; 井筒雅風, 『法衣史』(雄山閣, 1993), pp. 3-61; 岡田健·



도 1 탁티바히(Takht-i-Bahi) 사원지 출토 불의좌상

가지 옷을 가지는 것이 허락되었다.<sup>3</sup> 이것은 보통 三衣라고 하는데, 大衣(saṅghāti, 僧伽梨), 上衣(uttarāsaṅga, 鬱多羅僧), 下衣(安陀會, Antaravāsa)가 있으며 모두 겹옷이다.

大衣는 三衣 중 가장 겹에 입는 외출복의 성격을 가진 옷으로서,<sup>4</sup> 크기는 길이 4-6肘,<sup>5</sup> 넓이 2肘半-3肘半이며 條數에 따라서 25-9條까지의 옷을 말한다. 上衣는 평상복 중 가장 위에 입으며, 크기는 길이 5肘, 너비 3肘이고 條數가 7條이므로 七條衣라고도 한다. 下衣는 승원 내에서 머물거나 일하는 시간에 입는 옷으로서, 크기는 길이 4肘, 너비 2肘이다. 內衣로는 僧脚崎(Samkakasika, 掩腋衣)와 裙(Nivasāna)이 있다. 僧脚崎는 上內衣이며, 입는 방법은 왼쪽 어깨를 덮어 사선으로 내려 허리에서 끈으로 묶는다. 裙의 착의법은 장방형의 천

을 하반신에 두른 후 끈으로 묶는다.

상내의와 하내의를 입은 위에 三衣를 걸치는 것이 佛衣의 기본 착의법이다. 佛衣는 경우에 따라 통견과 편단우견 착의법으로 입을 수 있는데, 통견 착의법은 설법을 하거나 법도에 맞는 몸가짐을 취할 때 착용하며, 그 모습은 한 장의 장방형 佛衣가 양 어깨를 덮어서 온 몸을 감싼 형태이다. 偏袒右肩 着衣法은 불·보살과 연장자에 대하여 공경과 예를 표할 때

石松一奈子, 「中國南北朝時代の如來像着衣の研究」上·下, 『美術研究』356·357(1993), pp. 181-203, 223-239.

<sup>3</sup> 『彌沙塞部和西舍五分律』卷第二十 第三分之五 衣法上(大正新脩大藏經 22 No.1421, p.136ab; 崔完秀, 앞의 논문, p. 82 재인용).

<sup>4</sup> 大衣라는 명칭은 중국에서의 호칭으로 唐 이후의 경전(道宣 撰의 『道宣律師感通錄』(大正新脩大藏經 52, No.2107)과 義淨 譯의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大正新脩大藏經 23, No.1442)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북위시대까지 한역된 경전에는 僧伽梨라고 해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岡田健·石松一奈子, 앞의 논문, 註1 재인용).

<sup>5</sup> 肘는 1傑(1傑은 당척으로 약 29.8cm)의 2배 되는 크기이다.

착용하는 착의법이다. 불상은 착의법이 가지는 의미와 관계없이 편단우견과 통견 착의법으로 조성된다.

또한 경전에서는 三衣 즉 세 가지 복제를 가질 수 있되 상황에 따라서 모두 착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6</sup> 인도의 몇몇 의좌상에서는 기본 복제인 裙, 僧脚崎, 大衣 외에 최소한 한 장 이상의 복제를 착용한 것이 확인된다. 탁티바히(Takht-i-Bahi) 사원지 출토 불의좌상도<sup>1</sup> 이나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불의좌상을 보면 오른손을 따라 들어올려진 옷 사이로 가장 겹옷과 하내의인 군 사이로 또 하나의 옷이 있다. 흔히 불입상에서 손을 들어올렸을 때 보이는 짧은 복제와는 달리 옷의 크기가 겹옷과 거의 같다. 이를 통해 불상에도 裙, 僧脚崎, 大衣 외에 또 하나의 복제가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도 1에 보이는 동일한 의량의 두 복제는 三衣 중 류일 것이다.

## 2. 二重着衣法の 성격

이 장에서는 이중착의법을 이루는 佛衣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大西修也는 수·당대 이전에는 大衣 2장이 통견과 편단우견 착의법의 절충형식으로 입혀졌고, 수·초당 무렵부터는 偏衫에 대한 인식으로 조형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때부터 偏衫과 大衣의 이중착의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sup>7</sup> 大西修也는 대의 안쪽의 복제에 대하여 수·초당을 중심으로 그 이전은 大衣, 그 이후는 偏衫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지만 그 차이는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다.

둘째 대의와 그 안쪽의 옷이 偏衫이라는 의견이다.<sup>8</sup> 大衣 안쪽으로 보이는 옷을 偏衫이라고 보는 이유는 편단우견 대의로 인해 노출된 가슴을 가린 옷과 편삼의 발생 이유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鬱多羅僧이라는 의견으로,<sup>9</sup> 이는 鬱多羅僧과 大衣는 같이 입을

6 註3 참조.

7 大西修也, 「百濟の石佛坐像」, 『佛教藝術』 107(1976), pp. 11-26.

8 逸見梅榮, 앞의 책, pp. 328-344. 이의 대의와 그 안쪽 옷을 偏衫으로 다룬 논문은 久野健, 「東アジアの佛像と偏衫」, 『古代小金銅佛』(小學館, 1982), pp. 242-249; 大西修也, 앞의 논문, pp. 11-26; 田辺三郎助, 「鞏縣石窟北魏造像と飛鳥彫刻」, 『中國石窟 鞏縣石窟寺』(平凡社, 1983), pp. 233-243; 岡田健, 「龍門石窟初唐造像論-その一」, 『佛教藝術』 171(1987), pp. 81-104; 金春實, 「三國時代 施無畏 與願印 如來坐像考」, 『美術史研究』 4(미술사연구회, 1990.12), pp. 1-39 참조.

8 統一新羅 下代 佛像의 二重着衣法 研究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sup>10</sup> 대의 안쪽의 옷의 명칭에 대해 특히 偏衫과 鬱多羅僧이라는 두 가지 설로 요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偏衫이라는 복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옷은 복제의 형태가 성립된 시기인 북위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고, 북송대 이후의 기록인 『大宋僧史略』,<sup>11</sup> 『釋氏要覽』,<sup>12</sup> 『佛制比丘六物圖』,<sup>13</sup> 『四分律行事鈔資持記』<sup>14</sup> 등에 보인다. 이 자료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중국 魏에서 발생했으며, 둘째 그 발생 이유는 노출 부위를 가리기 위한 것이며, 셋째 승각기에 오른쪽 소매를 덧댄 것으로, 양 소매가 있으며 앞자락이 열린 중국식 옷이라는 것이다.<sup>15</sup> 그리고 衣量은 길이 4肘, 너비 2肘이다.

偏衫이 발생한 북위시대의 기록은 없지만, 그 형태는 조상례에서 찾을 수 있다. 승각기에 소매를 덧댄 저고리 형태의 偏衫삼도 1은, 북위 초기에 이미 장삼의 형태로 변하여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 敦煌 莫高窟 제263굴의 僧像도 2과 우리나라 고구려 쌍영총의 僧像 그림에서 가사 안에 장삼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중국이나 한국의 많은 고승 조각이나 그림 등에서 長衫을 확인할 수 있다. 저고리인 偏衫이나 장삼의 옷깃 형태는 대부분 가사에 가려져 여밈 형태인 y형으로 나타나는데, 偏衫을 입은 불상에서 가슴 사이로 보이는 y형 복제와 유사하다.

대의 안쪽으로 y형 복제를 입은 불상은<sup>16</sup> 중국에는 雲岡石窟, 龍門石窟, 麥積山石窟, 炳

9 文明大, 「百濟四方佛의 起源과 禮山石柱 四方佛의 研究」, 『韓國佛教美術史論』(民族社, 1987), pp. 54-60 참조. 그외에 岡田健·石松一奈子是 上衣가 偏衫이라는 說에 동조하고 있으면서도 偏衫과 끈이 없는 옷과의 관계, 偏衫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복제가 울다라승 또는 안타회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앞의 논문(1992.5), 註41 참조.

10 A. B. Griswold, 앞의 논문, pp. 85-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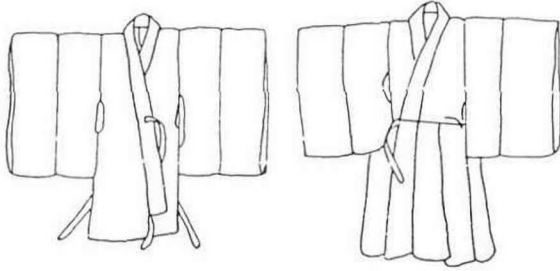
11 『大宋僧史略』 卷上 「服章法式」 又後魏宮人見僧自恣, 偏袒右肩乃一施肩衣, 號曰偏衫. 全其兩肩衿袖, 失祇支之體. 自魏始也(大正新脩大藏經 54, No.2126, p.238a).

12 『釋氏要覽』 卷上 「偏衫」 古僧依律制, 只有僧祇支(比名覆膊, 亦名掩腋衣). 此長覆左膊及掩右掖蓋(觀三衣故即天竺之儀也. 竺道祖魏錄云, 魏宮人見僧袒一肘不以爲善, 乃作偏袒縫於僧祇支上相從因名偏衫(今開春接領者蓋遺魏制也). (大正新脩大藏經 54, No.2127, p.270b)

13 『佛制比丘六物圖』 此方往古並服祇支至後魏時, 始加右袖, 兩邊縫合, 謂之偏衫. 截領開裾猶存本相, 故知偏衫左肩, 卽本祇支. 右邊卽覆肩也(大正新脩大藏經 45, No.1900, p.901b).

14 『四分律行事鈔資持記』 卷下之一, 但世人不識編衫卽是祇支覆肩二物, 故復於其上重更覆耳. 當知編衫右邊卽是覆肩, 但順此方縫合兩袖截領開裾猶存本相, 豈不然耶(大正新脩大藏經 40, No.1805, p.364c, p.365a).

15 승각기에 소매를 덧붙여 偏衫을 만들고, 偏衫에 다시 아랫도리를 덧붙인 옷이 장삼이다. 任榮子, 「韓國 宗教 服飾에 관한 研究」(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89), pp. 33-37, 그림 6; 朴英淑, 「法服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6-1(1978.3), p. 2 참조.



삽도 1 偏衫·長衫(任榮子, 「韓國 宗教 服飾에 關한 研究」, 숙명여대박사학위논문, 1989, 그림 6 재인용)



도 2 敦煌 莫高窟 제263굴 승상 그림

靈寺石窟, 敦煌 莫高窟 등 석굴의 초기 造像과 山東 龍興寺 佛立像, 陝西省博物館 소장 普泰元年銘(531) 석불비상을 비롯한 불비상 등에서 볼 수 있다. 초기에는 y형 복제를 입은 불상이 종종 보이지만 唐代 이후의 불상에서는 거의 볼 수 없으며, 敦煌 莫高窟 唐代 불화(제 311·420·407굴 등)의 본존상에서 통견 또는 이중착의법 안에 y형 복제가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의 예산 사망불 중 남면상(삽도 3의 y形 부분), 태안과 서산 마애불상 및 보원사지 금동불입상, 南宮鍊 소장 금동불좌상 등에서 볼 수 있으며, 渤海 半拉城 출토 이불병좌상 5구에는 삼국시대의 불상에서 선각으로 표시되던 y형 복제가 이중선과 연주문 등으로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다. 통일신라에도 양산 미타암 석불입상이 특이하게도 가슴을 크게 연 U형 목깃 大衣 안으로 y형 복제를 입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y형 복제는 偏衫(저고리) 혹은 장삼의 '여며진 옷깃' 표현과의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이 옷이 편삼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나 한국의 불상에서는 y형 복제를 불상에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일부의 불상에 제한적으로 선택, 수용하였음을 조상례에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세 번째 경우인 鬱多羅僧일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sup>16</sup> 岡田健·石松一奈子是 이 y형 내의의 옷깃을 맞부딪치는 옷이라고 하여 복위말 섬서 지역의 중국식 착의상에 많이 나타나며, 보살상에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여 복위말에서 동·서위 때에 유행하는 중국식 보살상의 한 형식으로 보았다. 앞의 논문, pp. 196-197.



도 3 백옥상, 隋代, 河北省 曲陽 출토

대의 안쪽 옷의 형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이중착의법 발생 초기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龍門石窟 賓陽中洞 본존상의 이중착의법은 대의 안쪽의 옷 끝자락은 대의 자락과 함께 왼쪽 팔로 넘겨지고 있다. 시대가 내려가면서 대의 안쪽의 옷 끝자락은 대의와 같은 착의법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河北省 曲陽 출토 佛坐像도 3을 보면, 이 상도 이중착의법인데 오른손을 들고 있다. 대의 안쪽의 옷 끝자락이 대의 밖으로 나왔는데, 들고 있는 오른손 위로 보이는 옷은 한 장의 천이다. 즉 재단하지 않은, 소매가 없는 한 장의 천으로 입고 있는 옷이다. 따라서 대의 안쪽의 옷이 저고리 형태의 편삼과는 다른 옷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대의 안쪽의 재단하지 않은 옷은 唐代 이후까지 볼 수 있으며, 偏衫은 첫째 승각기에 소매를 덧대어 생긴 저고리 형태의 옷이라는 점과 둘째 여밈옷으로, 불상에서 보이는 上衣는 여밈옷이 아니라는 점에서 편삼과는 차이가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이중착의법에서 대의 안쪽으로 보이는 옷은 上衣(鬱多羅僧)일 가능성이 높으며, 偏衫 혹은 장삼은 불상에서 y形의 형태로 나타나며 저고리 옷깃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 III. 二重着衣法の 전개

#### 1. 中國의 이중착의법

佛衣는 원래 인도 승려의 옷, 즉 僧衣이다. 인도인들은 자신들이 입던 옷을 그대로 불상

에 표현하였는데, 불교가 전파되면서 인도의 僧衣는 특별히 如來가 입는 옷으로 인식되었다. 그에 따라 佛衣·法衣라 부르면서 僧衣와는 점차 차별화되며, 특히 불상이 중국화되어 감에 따라 佛衣의 표현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필자는 이 변화를 佛衣의 소극적·적극적인 변화로 구별하였다.

착의법의 소극적인 변화는, 인도에서부터 전해지는 佛衣의 원형은 유지하면서 대의의 착의형태에서 부분적인 변화가 있다. 즉 장방형으로 된 한 장의 천으로 입되, 大衣 끝자락의 마무리나 목선의 다양한 처리 등에서 부분적인 변형을 준 것이다. 인도에서부터 전해진 기본 착의법인 통견과 편단우견 외에도 편단우견과 유사하게 오른쪽 어깨를 가린 편단우견식 착의법<sup>17</sup> 삽도 2이 있다. 이 착의법은 서역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다.<sup>18</sup> 또한 왼쪽 팔뚝으로 끝자락을 넘긴 복위식 착의법, 목선이 가슴 또는 배까지 내려지는 北齊式 着衣法<sup>19</sup> 등 소극적인 변형을 준 착의법이 있다.

적극적인 변화는 중국인 자신들이 입던 옷을 佛衣와 함께 불상에 표현한 방식과 착의법 자체를 인도의 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중착의법은 인도에서 보이는 착의법과 다른 즉, 적극적인 변화에 해당하는 착의법으로 대표적인 예는 龍門 賓陽中洞 본존불상이다<sup>4</sup>. 이 불상의 착의법은 먼저 양 어깨에 上衣를 걸쳐 입고, 그 위에 大衣를 편단우견식으로 오른쪽 어깨 일부만 덮고, 大衣와 上衣 끝자락을 모두 왼쪽 팔뚝으로 넘어가도록 처리하였다. 龍門 賓陽中洞 본존불상에서부터 등장하는 이중착의법은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초기 예와는 달리 上衣와 大衣 끝자락 처리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東西魏代 이후 唐代까지 上衣와 大衣 끝자락의 다양한 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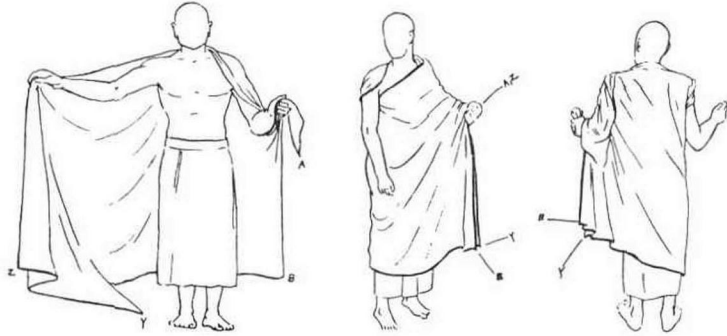
첫째, 대의는 편단우견이며 上衣 끝자락을 大衣 밖으로 뺀 상태에서 大衣 자락을 팔뚝으로 넘기거나 어깨로 넘긴 형태가 있다. 둘째, 대의는 편단우견이며 上衣 끝자락을 밖으로 빼지 않고 大衣 안에 넣은 상태에서 大衣 자락을 팔뚝으로 넘기거나 어깨로 넘긴 착의 형태가 있다. 셋째, 大衣를 오른쪽 어깨에 살짝 걸친 편단우견식이며 그 끝자락을 팔로 넘긴 착

17 오른쪽 어깨를 감싼 착의법에 대해서는 岡田健·石松日奈子(앞의 논문, pp. 183-185)은 涼州式 편단우견이라 하며, 久野健은(『東아시아의佛像と偏衫』, 『古代小金銅佛』, 小學館, 1982, pp. 242-249) 통견, 楊泓은(『試論南北朝前期佛像服飾的變化』, 『考古』1936年 第6期, pp. 330-337) 편단우견 착의법으로 분류하였다.

18 임영애, 『西域彫刻을 통해 본 東西美術交流』, 『美術史學』 11(1997), p. 57.

19 金春實은 『중국 北齊·周 및 隋代 如來立像 樣式的 전개와 특징』에서 대의가 가슴에서 깊게 패인 착의법을 이 복제가 크게 유행한 북제시대를 대표하여 '北齊式 服制'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美術資料』 53(國立中央博物館, 1994.6), pp. 108-114.

삽도 2 편단우견식 착의법  
 (A. B. Griswold,  
 "Prolegomena to the  
 Study of the Buddha's  
 Dress in Chinese  
 Sculpture," *Artibus Asiae*,  
 vol.26, no.2 (1963),  
 fig 2-1·4 재인용)



의법과 어깨로 넘긴 착의 형태가 있는데, 세 번째의 경우는 上衣 자락을 大衣 안으로 넣거나 내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초당 시기에 오른쪽 신체를 가린 옷을 입은 龍門石窟 賓陽南洞·藥方洞 불상 등에 주목하여 이런 착의법을 초당 하남 특유의 조상형식으로 보기도 하였다.<sup>20</sup>

이중착의법 외에도 중국 불상에서 보이는 적극적인 변화는, 중국인 자신의 옷을 불상에 채용하거나 혹은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형태의 옷을 창안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양 어깨를 덮고 끈을 부착한 옷'과 偏衫이 주목된다. '양 어깨를 덮고 끈을 부착한 옷'은 雲岡石窟 제16굴 본존불입상에서 잘 나타나는데, 佛衣의 안쪽에 V자로 내려진 옷과 여기서 띠가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옷의 기원이나 용도, 모양 등에 대해 중국 황제의 복장인 紳帶式 服制라는 의견과<sup>21</sup> 중



도 4 龍門 賓陽中洞 본존불상

<sup>20</sup> 岡田健, 앞의 논문, pp. 85-86.

국 남북조시대 사대부가 일상생활에서 입던 의복의 한 종류라는 의견이 있다.<sup>22</sup> 이 옷은 황제 또는 사대부의 복제로서, 중국인의 복제를 불상에 적용하여 표현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새로 창안된 형식의 옷으로는 偏衫을 들 수 있으며,<sup>23</sup>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저고리 형태의 복제로 중국인 승려들이 가사를 편단우견으로 입으면서 노출된 상체를 가리기 위해서 입기 시작했으며, 불상에서는 y형의 옷선을 보이는 佛衣 안쪽의 옷을 偏衫이라고 추정하였다.

## 2. 통일신라 하대 이전의 이중착의법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통일신라 하대 이전의 이중착의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중착의법을 취한 삼국시대 불상은 예산 사방불 중 남면 불좌상, 연동리 석불좌상, 선방사 본존상 등이 있다.<sup>24</sup> 삼국시대 이중착의법 형태를 살펴보면, 대의는 오른쪽 어깨를 가린 편단우견식이며, 그 아래로 보이는 上衣는 수직으로 내려진 형태이다. 착의 형태는 세 구의 불상 모두 大衣가 오른쪽 어깨를 감싸고 있지만, 예산 사방불 남면상의 上衣는 大衣 안으로 타이트하게 넣어졌고삼도3, 연동리 석불좌상의 경우는 수직으로 느슨하게 내려져 있다삼도4.

통일신라 초기에 이중착의법을 취한 불상은 가흥리 마애불좌상과 군위 삼존불좌상이 있다. 가흥리 마애불좌상은 삼국시대 이중착의법 불상과 같이 大衣가 오른쪽 어깨를 덮은 편단우견식 형태이며, 예산 사방불(남면)이나 연동리 석불좌상의 上衣와는 달리 大衣 안에 넣어졌다가 U형 주름을 크게 만들며 흘러나오게 표현하였다. 군위 석불좌상은 편단우견의

<sup>21</sup> 紳帶式 佛衣로 본 학자는 吉村伶과 村田靖子이다. 吉村伶, 「龍門樣式南朝起源論」, 『國華』 1121(1989.2), pp. 10-12; 村田靖子, 「止利式佛像の服制についての一考察」, 『美術史』 131(1992.2), pp. 1-3.

<sup>22</sup> 『北齊校書圖卷』, 『七賢圖』 등에서 보이는 중국 남북조시대 사대부들이 일상생활에서 착용했던 의복의 한 종류로 모양새는 사대부 의복에서 양 어깨를 덮고 옷깃은 맞부딪히지 않으며 앞가슴 좌우에 옷깃을 붙여 매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소매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岡田健·石松一奈子, 앞의 논문, pp. 194-196.

<sup>23</sup> 岡田健와 石松一奈子是 양 어깨를 덮고 끈이 부착된 옷, 옷깃이 맞닿은 옷, 偏衫을 內衣에 포함시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앞의 논문, pp. 193-199.

<sup>24</sup> 이중착의법을 취한 삼국시대 불상에 대한 논문은 大西修也, 앞의 논문, pp. 23-41; 久野健, 「百濟佛像의 服制와 그 源流」, 『百濟研究』 창간호(1982), pp. 225-253; 田辺三郎助, 앞의 논문, pp. 233-243; 大西修也, 「百濟佛再考」, 『佛教藝術』 149(1983), pp. 11-26; 文明大, 앞의 논문, pp. 37-71; 金春實, 앞의 논문 참조.



삽도 3 예산 사방불 남면 불좌상  
 (文明大, 「百濟四方佛의 起源과  
 禮山石柱 四方佛像의 研究」, 『韓國佛敎美術史論』,  
 民族社, 1987, 그림 1 재인용 및 빗금 필자)



삽도 4 익산 연동리 석불좌상  
 (大西修也, 「百濟의 石佛坐像」,  
 『佛敎藝術』 107, 1976, 圖 1 재인용 및 빗금 필자)

大衣, 그리고 上衣로 이루어졌다 삽도 5.

8세기에 이중착의법을 취한 불상은 경주 두대리 마애불입상, 경주 남산 보리사 석불좌상과 경주 남산 용장계 석불좌상, 경주 남산 삼릉계 약사불좌상이다. 세 구의 불상 모두 편단우견 대의이며, 上衣 끝자락이 大衣 밖으로 내려진 형태이다. 따라서 上衣의 끝자락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경주 남산 삼릉계 약사불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상의 끝자락은 역삼각형으로 뾰족한 형태이다.



삽도 5 군위 석불좌상, 경북 군위  
 (文明大, 『韓國彫刻史』, 悅話堂, 1980,  
 그림 51 재인용 및 빗금 필자)

#### IV. 統一新羅 下代 二重着衣法の 유형

통일신라 하대 이중착의법의 기본 착의순서는 上衣를 양 어깨에 걸쳐 입을 후 그 위에 大衣를 편단우견으로 착용한다. 따라서 佛身의 오른쪽 가슴과 팔 위로 上衣의 일부를 볼 수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백률사 금동불상은 입상이면서 채색이 남아 있어서 이중착의의 형태를 잘 살펴볼 수 있다<sup>삼도6</sup>. 이 불상은 초록색으로 채색된 上衣를 양 어깨에 걸쳐 입고 그 위에 붉은색으로 채색된 大衣를 편단우견으로 입었다. 佛身 향좌측 佛衣의 아랫부분에서 上衣 위로 大衣가 지나가는 것 즉 교차되는 부분을 볼 수 있다. 백률사 금동불입상의 배면은 꼬다리 구멍과 4개의 鑄型孔이 세로로 뚫려 있지만, 대형의 불상이어서 착의 형태가 잘 남아 있다<sup>삼도7</sup>.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내려가는 大衣 끝단은 1단의 띠주름으로 표현하였고, 佛身 앞을 돌아 왼쪽 어깨 위로 넘겨진 大衣 끝자락은 한 번 크게 반전하여 신체의 앞 쪽으로 휘어졌다. 배면의 향우측을 보면, 뒷목을 감싼 上衣가 사선의 大衣 안으로부터 흘러 나와 길게 늘어져 있다<sup>삼도7</sup>의 빗금 부분. 大衣 안쪽에 입은 上衣는 양 어깨를 덮은 형태이고 大衣는 편단우견으로 착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중착의법에 대한 묘사가 배면까지 철저하게 조각된 것은 금동불상으로는 드문 예이다. 특히 소금동불상의 경우에는 배면에 鑄型孔이 크게 남아 있어서 착의형태 표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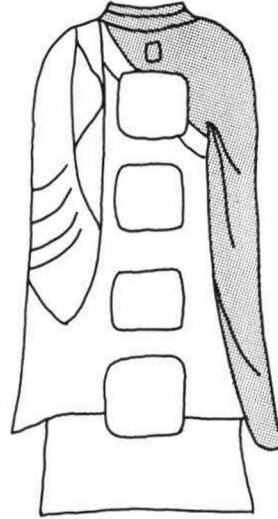
통일신라 하대 통견 착의법을 취한 석불상과 비교하면 이중착의법 형태가 더욱 분명해진다. 상주 증촌리 석불좌상<sup>도5</sup>을 예로 들면, 이 불상의 착의법은 한 장의 佛衣를 두른 통견 착의법으로, 목깃이 가슴까지 등글게 내려진 느슨한 목선을 볼 수 있다. 배면의 끝자락은 수직으로 넓은 띠주름이 두 번 반전하며 길게 내려졌는데 배면의 향우측<sup>도6</sup>을 보면 上衣와 大衣가 교차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수직의 띠주름을 조각하였다. 즉 이중착의법을 취한 불상의 배면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통일신라 하대에는 이중착의법을 취한 불상의 예가 많은데, 佛衣의 이중착의법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착의의 세부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자 한다. 제1유형은 통일신라 하대에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으로, 上衣 위에 大衣를 편단우견으로 입은 불상들이다. 제1유형에 속하는 불상 예가 많아서 세부 처리에 따라 다시 분류했는데, 제1-①·②유형은 띠매듭의 유무에 따라 나누었으며, 제1-③유형은 大衣가 다리 위에서 U형으로 표현된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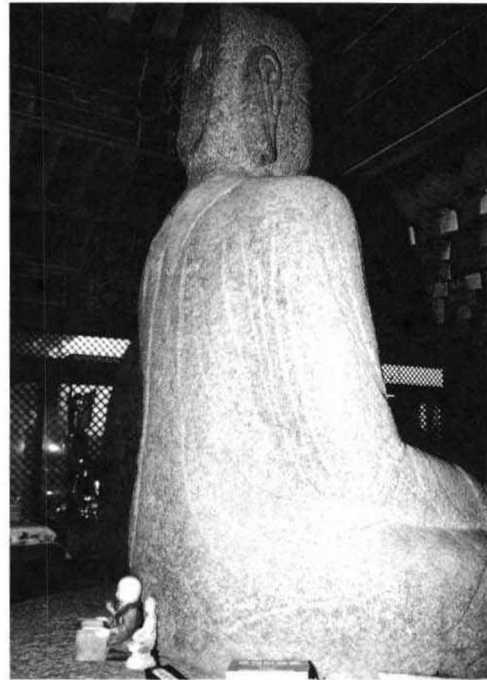


삽도 6 백률사 금동불입상, 국립경주박물관  
(文明大, 『韓國彫刻史』, 悅話堂, 1980,  
그림 82 재인용 및 빗금 필자)

삽도 7 백률사 금동불입상 背面



도 5 상주 증촌리 석불좌상, 경북 상주



도 6 상주 증촌리 석불좌상 背面(向右侧)

표 1 통일신라 하대 이중착의법의 유형 분류

분 류	세부기준	불 상 예
이중착의법 제1유형	1-① 승각기+군	실상사 철불좌상, 흥천물걸리 비로자나불상, 예천동본동 석불입상, 경주남산용장계 마애불좌상, 골굴암마애불상, 경북대박물관소장비로자나불상, 도피안사철불좌상
	1-② 승각기+군 +띠,띠매듭	청룡사 석불좌상, 비로사 비로자나불좌상, 동화사입구 마애불좌상, 부석사상(中左右), 선산해평동 석불좌상, 성혈사 석불좌상, 영양 약사불좌상, 흥천물걸리 석불좌상, 보림사 철불좌상
	1-③ U형의 대의 앞자락 표현	동화사 석불좌상, 간월사석불좌상, 불곡사 석불좌상
이중착의법 제2유형	상의가 대의 밖으로 내려짐	경주남산삼층계 석불좌상, 경주남산약수계 마애불입상, 후석사 석불좌상
이중착의법 제3유형	오른쪽 어깨를 가린 대의	법주사 석불좌상, 축서사 석불좌상, 안기동 석불좌상

제2유형은 제1유형과는 달리 上衣 끝자락을 大衣 밖으로 내린 특징이 있으며, 제3유형은 오른쪽 어깨를 덮고 있는 편단우견식 大衣가 특징이다(표1 참조).

## 1. 이중착의법 제1유형

### 1) 이중착의법 제1-①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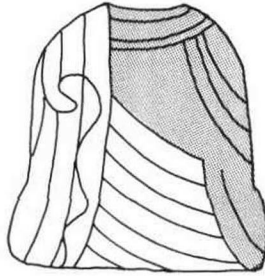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중착의법 제1-①유형은 上衣 위에 편단우견 大衣를 입은 이중착의법이며, 가슴에 사선으로 승각기가 보이지만 띠·띠매듭은 표현하지 않았다.

실상사 철불좌상은<sup>25</sup> 양 손과 다리의 일부분과 배면을 크게 보수하였다. 이 불상은 오른손을 든 시무외인이므로 上衣가 大衣 안으로 접혀졌다가 흘러나온 부분을 정확히 볼 수 있다. 다습도 8의 빗금 부분, 즉 上衣 위로 大衣를 돌려 입은 형태가 잘 나타난다. 배면은 중앙 부분을 크게 보수하여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지만, 왼쪽 배면 아래에는 반전하며 내려진 大衣 끝자락과 오른쪽 배면 아래에는 上衣가 大衣 안으로부터 흘러내린 옷자락을 볼 수 있다.

<sup>25</sup> 이 불상은 洪陟國師가 실상사를 개창한 828년 이후인 9세기 2/4기에 조성되었다고 추정된다. 文明大, 「新羅鐵佛 造成問題와 實相寺 鐵阿彌陀佛坐像의 研究」, 『佛教學報』 37(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院, 2000), pp. 9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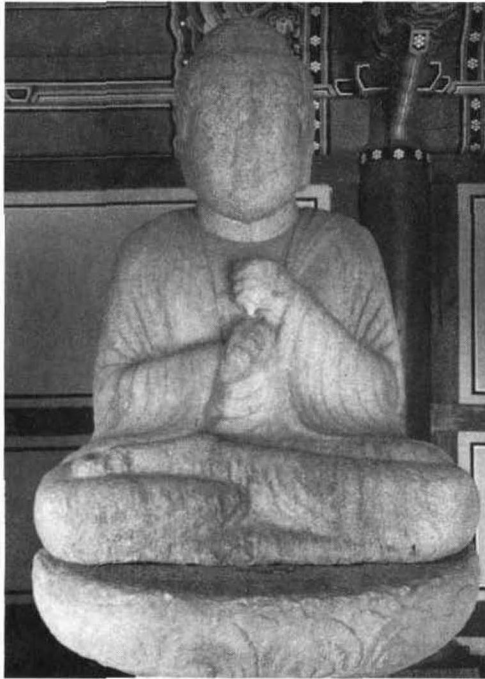
삼도 8 실상사 철불좌상, 전남  
(文明大, 『新羅下代佛像彫刻의  
研究』, 『歴史學報』 73, 1977,  
圖 4 재인용 및 빗금 필자)



삼도 9 홍천 물결리  
석불좌상 背面, 강원도 홍천



삼도 10 도피안사 철불좌상,  
강원도 철원(文明大, 『韓國彫刻史』,  
悅話堂, 1980, 그림 87 재인용 및  
빗금 필자)



도 7 홍천 물결리 석불좌상, 강원도 홍천



도 8 도피안사 철불좌상 背面, 강원도 철원

홍천 물걸리 석불좌상(비로자나불상 이하 '비')도 7은 실상사 철불좌상과 유사한 착의 법이다. 정면에서 보면 上衣 위로 大衣가 지나가는 형태가 지권인의 수인으로 가려져서 확연히 드러나진 않지만, 측면에서 보면 오른손 아래로 上衣의 자락이 大衣 안에 접혔다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배면을 가로지르며 사선으로 내려진 大衣는 윗단이 다른 상과는 달리 띠주름이 아니라 간격이 넓은 평행계단주름이며, 사선으로 내려진 大衣는 佛身 앞쪽으로 옷자락을 돌려 佛身을 덮고 다시 왼쪽 어깨로 넘겼다<sup>26</sup> 9. 이렇게 넘겨진 배면의 大衣 끝자락은 위에서 같고리 형태를 만들고 아래로 반전하며 흘러내리고 있다. 또한 이 상은 특이하게도 上衣 부분에 4단의 수직주름을 목에서부터 팔꿈치에 이르도록 조각하였다<sup>26</sup> 9의 빗금 부분.

도피안사 철불좌상<sup>26</sup> 역시 이중착의법이며, 가슴 앞으로 모은 지권인의 수인 뒤로 上衣<sup>26</sup> 10의 빗금 부분과 大衣가 교차하는 부분이 보인다. 그러나 배면도 8은 大衣 끝자락이나 上衣 위로 大衣가 지나가는 부분이 보이지 않고, 양 어깨 아래로 중간이 끊어진 U형 의습선이 나타나므로 배면만을 보면 하나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 즉 佛衣의 앞·뒷면의 착의법이 다르게 보이는데, 이는 아마도 뒷면 중앙에 명문을 조각하기 위해서 뒷면 옷자락 표현을 생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습선의 형태는 佛衣 전면에 평행계단주름을 넓은 간격으로 조각하였으며, 양 팔꿈치에서는 9세기 중엽 이후로 등장하는 물방울 모양의 주름이 조각되었다.

이밖에도 경주 남산 용장계 마애불, 골굴암 마애불, 예천 동본동 석불입상, 경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석비로자나불좌상도 모두 이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 불상은 마모가 심하거나 변형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경주 남산 용장계 마애불상은<sup>27</sup> 왼쪽 어깨에서 내려오는 3단의 수직주름이, 가슴에 사선으로 보이는 大衣의 의습선과는 별도로 조각되어 마치 양 어깨에 하나의 지고리를 걸친 것처럼 보이도록 표현되었다. 왼쪽 팔꿈치에서 반타원형의 주름과 다리의 수직반원형주름 등이 돋보인다. 골굴암 마애불상도 上衣와 大衣로 이루어진 이중착의법이지만, 腹部에서 보이는 주름과 어깨로 넘어가는 의습선의 부자연스러운 연결로 용장계 마애불좌상과 같은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上衣 위

<sup>26</sup> 도피안사 철불좌상은 배면의 명문으로 咸通 6년(865)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sup>27</sup> 이 불상의 조성시기는 8세기 3/4분기(文明大, 「太賢과 葺長寺의 佛敎彫刻」, 『白山學報』 17(1974), pp. 115-159), 8세기 중엽(姜友邦, 「慶州南山論」, 『圓融과 調和』(悅話堂, 1990), pp. 406-408), 8세기 후반(柳麻里, 「慶州南山 9세기 磨崖佛像의 考察」, 『新羅文化』 10·11(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1994), pp. 69-77), 팔과 다리의 표현, 의습선 등으로 통일신라 하대 조성으로 편년되고 있다(金理那, 「統一新羅時代의 降魔觸地印佛坐像」, 『韓國古代佛敎彫刻史』(一潮閣, 1989), pp. 346-347 참조).

로 大衣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지만, 佛身 오른쪽 의습선이 파손되어 (형으로 구부러진 흔적만을 겨우 확인할 수 있다. 예천 동본동 석불입상은 가슴에서 上衣와 大衣가 부자연스럽게 처리되었다. 배에서 왼쪽 어깨로 넘어가는 大衣의 옷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앞에서 보면 마치 짧은 저고리를 걸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경북대학교박물관 소장 석비로자나불좌상은 지권인의 수인으로 앞면에서는 上衣 위로 大衣가 지나가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지만, 배면에서는 선각으로 표현된 의습선이 이중착의법의 형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 2) 이중착의법 제1-②유형

이중착의법 제1-②유형은 이중착의법 제1-①유형과 같은 착의법이나 가슴의 승각기 위로 띠와 띠매듭이 보인다. 이 유형의 이중착의법은 배면의 형태와 佛身 앞 향좌측에서 上衣와 편단우견으로 지나는 大衣의 교차지점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지권인을 한 불상의 경우 수인 아래를 살펴보아야 드러나는데 비해 향미축지인을 취한 불상의 경우는 上衣와 大衣의 교차지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청룡사 석불좌상, 부석사 자인당 석불좌상(중앙), 선산 해평동 석불좌상, 동화사 입구 마애불좌상, 영양 연당동 석불좌상, 홍천 물걸리 석불좌상의 경우가 그러하다.

청룡사 석불좌상은 삼도 11 佛衣 전체에 거의 여백없이 평행계단주름을 조각하였다. 양 어깨에 걸쳐 입은 上衣 위로 편단우견의 大衣를 입었으며, 佛身 앞 향좌측에서 上衣와 大衣가 교차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 교차 부분에서 大衣 위로 흘러내리는 上衣도 평행계단주름으로 조각하였으며, 오른쪽 팔뚝을 넘어 佛身 뒤로 연결되고 있다. 부석사 자인당 석불좌상(중앙) 역시 청룡사 석불좌상의 착의법과 거의 흡사하다.

동화사 입구 마애불좌상은 上衣 끝이 (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선산 해평동 석불좌상은 上衣(向左)와 大衣(向右)가 V형으로 가슴을 열었다. 이들 상 모두는 上衣 위로 大衣가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접히는 上衣 표현을 평행계단주름으로 여백없이 조각하였다. 영양 연당동 석불좌상은<sup>28</sup> 上衣와 大衣의 두 옷이 가슴에서 V형으로 열려 있으면서, 배 앞에서 上衣 위로 大衣가 지나가는 것이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배에서 오른쪽 팔뚝으로 연결

<sup>28</sup> 이 불상은 오른쪽 뒤통에 새겨진 명문(龍紀)元年己酉八月佛成之)으로 889년(진성여왕 3)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文明大, 『韓國彫刻史』(悅話堂, 1980), p. 284.



삼도 11 청룡사 석불좌상, 경북  
(文明大, 『韓國彫刻史』, 悅話堂, 1980,  
그림 89 재인용 및 빗금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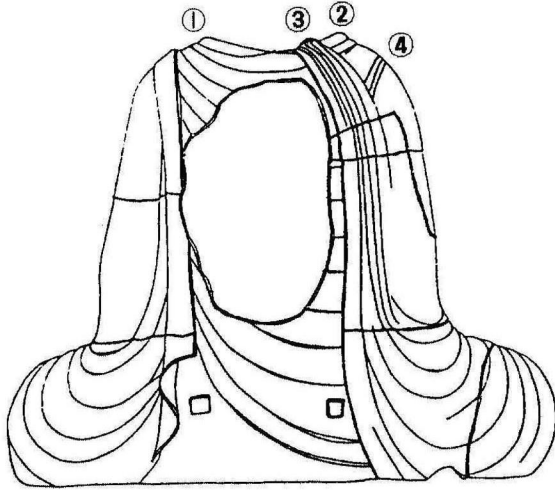


삼도 12 보림사 철불좌상, 전남  
(文明大, 『韓國彫刻史』, 悅話堂, 1980,  
그림 91 재인용 및 빗금 필자)

되는 上衣의 의습선 모양에서 이중착의법임을 알 수 있다. 흥천 물걸리 석불좌상은 가슴에 보이는 왼쪽 옷깃과 배 앞의 U형 주름이 부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짧은 저고리처럼 보이는 이중착의법이다. 언뜻 보면 大衣와 上衣의 옷 끝단이 목에서부터 내려와 양 팔의 끝단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표현되어 양 옷깃을 연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

비로사 석불좌상, 부석사 자인당 좌우의 석불좌상 2구, 성혈사 석불좌상은 지권인의 수인을 취하고 있다. 지권인의 수인을 취한 오른손으로 인해서 大衣 위로 흘러나오는 上衣의 옷선이 긴 Ω형을 만든다.<sup>29</sup> 보림사 철불좌상도<sup>30</sup> 역시 이중착의법이다(삼도 12). 그러나 배면에서는 다른 이중착의법 배면 형태와 차이가 있다. 배면삼도 13을 보면, ①과 ②는 하나의 목깃처럼 연결되고 ③의 지점에서 몇 가닥의 옷자락이 수직으로 내려진다. 또 하나 오른쪽 어깨 부근인 ④지점에서 몇 가닥의 주름이 있는데, ④지점의 주름과 함께 佛身 앞면의 오른쪽 목

<sup>29</sup> 긴 형을 통일신라 하대 불상의 착의법의 특징으로 보기도 한다. 文明大, 「聖穴寺 石造毘盧舍那如來坐像의 한 고찰」, 『考古美術』 131(韓國美術史學會, 1976.9), p. 7.



삼도 13 보림사 철불좌상 背面

깃 주름을 만들고 ①은 왼쪽 목깃 주름을 만들었다. 즉 이중착의법을 표현할 때 배면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서 大衣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上衣의 모습을 잘못 이해하여 목깃에서부터 수직주름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3) 이중착의법 제1-③유형

제1-③유형의 이중착의 형태는 1-①·②유형과 동일하나 大衣가 두 다리 위를 U형으로 덮은 특징을 보인다. 착의법은 이중착의법 제1-

①·②유형과 같이 大衣가 뒷면 어깨에서 오른쪽 옆구리까지 사선으로 내려온 다음, 佛身 앞을 덮고 그 끝자락을 왼쪽 어깨 위로 넘겼다. 뒷면에서 보면, 사선의 大衣 끝단 위로 덮은 옷이 上衣로, 뒤의 목깃을 형성하며 사선의 大衣 위로 上衣가 흘러내리는 것이 보인다. 이중착의법 제1-③유형에 속하는 불상으로는 동화사 석불좌상, 불곡사 석불좌상, 간월사 석불좌상이 있다.

동화사 석불좌상<sup>31</sup> 역시 上衣 위에 편단우견의 大衣를 입은 이중착의법이며, 지권인의 아래로 大衣 위로 빠져나온 上衣가 긴 Ω형을 만들고 있다<sup>삼도 14</sup> 빗금 부분. 배면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사선으로 내려진 大衣가 윗단의 띠주름 밑으로 넓은 간격의 평행계단 주름을 형성하고 있고, 왼쪽 어깨로 넘겨진 大衣 끝자락은 윗부분에서 또아리를 틀며 자연스레 내려지고 있다. 그리고 왼쪽 어깨에서 배면을 가로질러 오른쪽 옆구리로 내려진 사선의 大衣 끝단 위로 上衣가 호선형으로 흘러나오는 것도 볼 수 있다<sup>도 9</sup>.

불곡사 석불좌상의 착의법은 上衣(向左)와 大衣(向右)가 양 어깨를 덮어 내려와 가슴에

<sup>30</sup> 원팔 위에 大中 12년의 연호가 있어서 858년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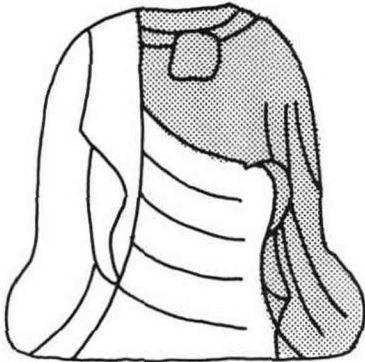
<sup>31</sup> 이 불상은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에서 나온 사리함의 표면에 있는 명문(咸通 4)으로 863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黃壽永, 「奉化西洞里 東三層石塔의 舍利具」, 『美術資料』 7(國立中央博物館, 1963.6), pp. 5-7; 「新羅敬哀大王石塔記」, 『史學志』 3(1969.7), pp. 53-86 참조.



삽도 14 동화사 석불좌상, 경북 대구  
(文明大, 『韓國彫刻史』, 悅話堂, 1980,  
그림 92 재인용 및 빗금 필자)



도 9 동화사 석불좌상 向左側面, 경북 대구



삽도 15 불곡사 석불좌상 背面, 경남 창원



삽도 16 남산 삼릉계 석불좌상, 경북 경주  
(韓國美術史研究所, 『廣州南山實測調査研究』,  
1989, 圖 26 재인용 및 빗금 필자)

서 하나의 U형 옷선을 만들고 있다. 양 손이 지권인을 취하면서 上衣과 大衣는 긴 Ω형을 나타내고 있다. 배면을 보면 사선으로 등을 가로지르며 내려진 大衣는 넓은 평행계단주름이고, 大衣 끝자락은 상단 칼날 모양이다. 이 자락은 그 아래로 두 번 정도 반전하며 길게 늘어뜨려져 있다. 上衣는 옷끝단이 유려하게 반전하며 大衣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다(삽도 15의 빗금 부분).

간월사 석불좌상도 大衣가 무릎을 U형으로 덮고 있다. 착의법은 上衣(向左)와 大衣(向右)가 수직으로 내려와 가슴 아래까지 깊게 파여 있다. 배면에는 사선으로 내려진 大衣 끝단 위로 上衣가 흘러나오며, 大衣 끝자락도 세 번 반전하였다.

## 2. 이중착의법 제2유형

이중착의법 제2유형은 上衣를 양 어깨에 걸쳐 입고 나서 大衣를 편단우견으로 착용하는 것은 제1유형과 같지만, 오른쪽 어깨에서 내려진 上衣의 끝자락을 大衣 밖으로 내린 것이 특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불상은 경주 남산 삼릉계 석불좌상, 경주 남산 약수계 마애불입상, 흑석사 석불좌상이 있다. 많은 예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흑석사 석불좌상처럼 大衣 밖으로 내린 上衣 끝자락이 자연스럽게 오른쪽 신체 측면으로 돌려지는 형태와 경주 남산의 두 불상처럼 뾰족한 삼각형을 만들며 내려지고 있는 두 형태를 볼 수 있다.

흑석사 석불좌상은 오른쪽(向左) 어깨에서 3단의 평행계단주름을 형성한 上衣가 大衣 밖으로 죽내려져 오른쪽 佛身 측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경주 남산 삼릉계 목이 없는 석불좌상도(삽도 16) 오른쪽 어깨 위로 보이는 上衣(삽도 16의 빗금 부분)가 大衣 위로 내려져 무릎 위에서 그 끝자락을 볼 수 있는데, 끝을 날카롭게 처리한 삼각형 형태를 하고 있다. 간단히 선각으로 표현한 배면에도 佛衣에서 上衣가 흘러 나오는 부분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처리되어 있다.<sup>32</sup>

경주 남산 약수계 마애불입상은 마애불이므로 배면 조각을 볼 수는 없지만, 오른쪽 옆구리에서 왼쪽 어깨로 넘어가는 옷자락이 大衣이며, 오른쪽 어깨에서 上衣 끝자락을 大衣 밖으로 뻗 이중착의법이다. 上衣 끝자락 형태가 경주 남산 삼릉계 석불좌상과는 약간 다르지만 끝을 뾰족하게 처리한 형태는 같은 특징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sup>32</sup> 배면의 소용돌이 모양은 경주 남산 용장계 석불좌상의 배면 형태와 동일하다.



삼도 17 법주사 석불좌상, 동국대박물관 소장  
(文明大, 『韓國彫刻史』, 悅話堂, 1980,  
그림 95 재인용 및 빗금 필자)



삼도 18 법주사 석불좌상 背面,  
동국대박물관 소장

### 3. 이중착의법 제3유형

이중착의법 제3유형은 大衣 착의법에 특징이 있다. 통일신라 하대 이중착의법을 취한 대부분 불상의 경우 大衣는 편단우견 착의법이다. 그런데 이중착의법 제3유형은 삼국시대에 보이던 이중착의법처럼 大衣가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고 있다. 다만 차이가 느껴지는 것은 삼국시대와는 달리 大衣는 오른쪽 어깨를 덮었지만 팔을 감싸지 않고, 오른쪽 옆구리 사이로 大衣 자락을 넣어 佛身 앞으로 옷자락을 돌린 편단우견식 착의법이다.

삼국시대와 통일 초기, 고려·조선시대 불상에서 대부분의 이중착의법이 편단우견식 大衣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시기에 편단우견식 대의를 입은 불상이 적은 것은 특이하다. 제3유형에 속하는 불상으로는 법주사 석불좌상, 축서사 석불좌상, 안기동 석불좌상이 있다.

법주사 석불좌상은 上衣을 양 어깨에 걸쳐 입고 그 위에 大衣를 입었다. 大衣는 왼쪽 어깨를 덮고 목 뒤를 돌아 오른쪽 어깨를 덮은 뒤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佛身 앞으로 빠져나와 배 앞을 지나 마지막으로 大衣 끝자락을 왼쪽 어깨로 넘겼다. 上衣은 오른쪽(향좌측) 어깨를 살짝 덮은 大衣 아래로 보인다(삼도 17의 빗금 부분). 大衣는 제1-③유형처럼 무릎을 U형으로 덮



도 10 축서사 석불좌상, 경북 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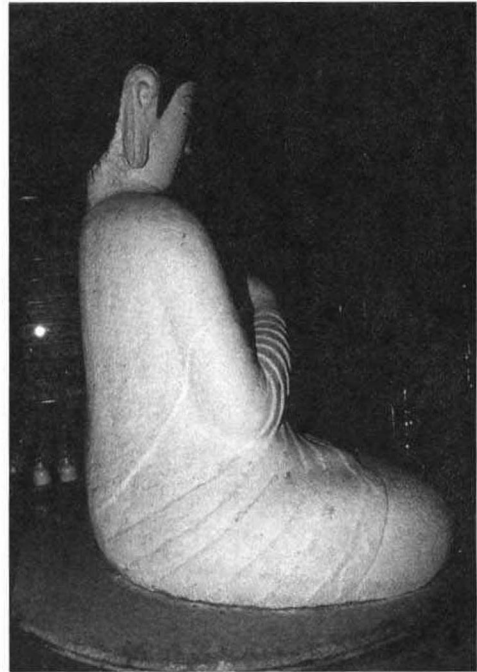
고 있다. 뒷면을 보면 목깃과 오른쪽 어깨를 덮은 大衣가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빠져 나가는데, 大衣 옷깃이 꼭 낀 모습이다. 그 아래로 上衣가 弧線을 그리면서 佛身 앞으로 이어져 있다(삼도 18의 빗금 부분). 뒷면의 왼쪽 어깨에서는 大衣 끝자락이 걸쳐져 내려지는 것도 볼 수 있다. 제1·2유형처럼 뒷목과 오른쪽 어깨와 신체를 감싸고 있는 겉옷이 上衣가 아닌 大衣가 되는 것이다.

축서사 석불좌상<sup>33</sup>의 이중착의법은 제3 유형 중에서도 특이하다(도 10).

大衣는 오른쪽(向左) 어깨를 덮은 편단 우견식이지만, 대의 끝자락은 불신 앞으로



도 11 축서사 석불좌상 向右側面



도 12 축서사 석불좌상 向左側面

돌린 후 왼쪽 어깨로 넘기는 방식의 끝마무리를 하지 않았다. 즉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는 불신의 뒷면으로 그대로 내려졌다. 그래서 왼쪽 어깨 뒤로 넘겨진 大衣 끝자락도 볼 수 없고 도 11, 오른쪽 옆구리에서 上衣가 흘러나온 모습도 볼 수 없다<sup>12</sup>. 大衣는 왼쪽 어깨 아래로, 上衣는 오른쪽 어깨 아래로 각각 내려지는 것이 주목되며, 그에 따라 가슴과 배, 띠와 띠매듭이 보인다.

안동 안기동 석불좌상의 이중착의법 역시 大衣가 오른쪽 어깨를 감싸고 있다. 이 불상의 경우에는 배면의 조각이 뚜렷하진 않지만 佛身 앞 오른쪽 부분에서 大衣가 上衣 위로 지나가고 上衣가 겹쳐지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므로 이중착의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 V. 統一新羅 下代 二重着衣法의 특징

이 장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불상을 중심으로 통일신라 하대 이중착의법이 가지는 특징을 정리하고 그 祖形을 유추하며 마지막으로 통일신라 하대 이중착의법의 성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특징은 편단우견의 대의이다. 통일신라 하대 이중착의법 중 가장 끝에 입은 대의는 삼국·고려·조선의 대의와는 달리 편단우견 착의법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삼국과 고려·조선시대 이중착의법의 大衣가 오른쪽 어깨를 가린 편단우견식 착의법인 것과는 형태상 차별성을 가지며, 통일신라 하대에서 이런 형태를 취한 불상은 축서사 석불좌상, 흑석사 석불좌상, 안기도 석불좌상뿐이다.

사실 편단우견의 대의로 입혀진 이중착의법은 통일신라 초기부터 등장하여 하대 신라까지 볼 수 있다. 즉 편단우견 대의를 취한 이중착의법은 통일신라의 전반적인 특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신라 중대의 이중착의법은 편단우견의 大衣를 가슴 위까지 올려서 上衣 위로 지나가며 上衣는 어깨에서 직선으로 내려지는 비대칭형이다. 따라서 上衣 위로 大衣가 지나가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 이런 형태는 통일신라 하대, 특히 9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大衣와 上衣의 옷선이 가슴 아래까지 내려와 가슴을 모두 드러내고 있어

<sup>33</sup> 이 불상의 조성시기는 축서사 삼층석탑에서 나온 사리함에 새겨진 명문(咸通 8)과 연관지어서 867년작임을 알 수 있다.

서 승각기 등이 보이며, 上衣와 大衣가 교차하는 지점이 밋밋하게 표현되는 등 형태면에서 다소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양 어깨에서 내려진 상의와 대의의 옷선이 가슴에서 좌우 대칭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통일신라 중대의 이중착의법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중착의법 제2유형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上衣 끝자락이 大衣 밖으로 내려지는 특징이다. 上衣가 大衣 밖으로 내려지는 착의 형태는 중국에서 복제·주 이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불상처럼 많이 보이지는 않고, 경주 남산의 삼릉계 석불좌상과 약수계 마애불입상 등에서 볼 수 있다.<sup>34</sup> 이 두 불상은 끝자락이 역삼각형처럼 뾰족하게 무릎 앞으로 내려졌으며 이는 경주 남산 삼릉계 약사불좌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함께 남산 불상의 특징 중 하나로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흑석사 석불좌상처럼 上衣 자락이 오른쪽 허리로 돌아나가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용장계 석불좌상과 서로 상통한다.

세 번째 특징은 上衣와 大衣 끝자락을 모두 신체 앞으로 내린 이중착의법 형태를 들 수 있다. 이 착의법은 大衣가 오른쪽 어깨를 살짝 가린 편단우견식이면서도, 佛身 앞으로 大衣를 넘기지 않고 그대로 배면으로 내린 형태이다. 이러한 착의법은 佛身 앞에서 보면 上衣와 大衣 끝자락 모두 신체 앞으로 내려져 佛身 앞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 착의법을 취한 불상은 이중착의법을 취한 불상 중에서 축서사 석불좌상이 유일하다.

네 번째 특징은 이중착의법의 변형된 형태이다. 예천 동본동 석불입상, 경주 남산 용장계 마애불좌상은 배 앞에서 上衣와 大衣가 형으로 직각으로 끊어지듯 표현되어 마치 짧은 저고리를 입은 것처럼 보인다. 또한 경북대학교박물관 소장 석비로자나불좌상과 홍천 물걸리사지 석불좌상처럼 大衣와 上衣가 하나의 옷처럼 양 어깨를 덮어내린 것처럼 보이게 표현한 불상도 더러 있다. 보림사 철불좌상과 도피안사 철불좌상은 佛身 뒷면에서 변형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보림사 철불좌상 뒷면을 보면, 大衣는 통견처럼 입혀지고 上衣는 목깃에서부터 나오고 있으며, 또한 佛身 앞에서는 이중착의법 형태를 보이고 있다. 도피안사 철불좌상은 뒷면 중앙에 명문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이중착의법을 취한 불상의 착의법과는 달리 중간이 끊어진 U형으로 표현되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배면의 조각이다. 이중착의법을 취한 금동불상의 경우 시대가 내려옴

<sup>34</sup> 金理那, 「統一新羅時代의 降魔觸地印坐像」,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一潮閣, 1989), p. 360.

에 따라 穴孔이 커져서 배면의 조각을 볼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통일신라 하대 이전의 이중착의법을 취한 불상들 예를 들면 군위 삼존불상이나 보리사 석불좌상, 경주 남산 삼릉계 약사불좌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같이 뒷면 조각이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다. 경주 남산 삼릉계 약사불좌상 같은 경우에는 大衣의 끝자락이 왼쪽 팔뚝 뒤쪽에 조각되는 등 배면을 전혀 조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신라 하대 불상은 배면까지 조각하여 이중으로 입은 착의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신라 하대 이중착의법의 祖形과 대의 안쪽에 보이는 복제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통일신라 하대 이중착의법에서 가장 끝에 입은 大衣는 편단우견 착의법이다. 偏袒右肩의 大衣가 가장 먼저 보이는 불상은 군위 삼존석불 중 본존불이다. 이 불상은 특히 隋代와 初唐의 불상 양식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불상으로 알려져 있는데,<sup>35</sup> 특히 착의법이 주목된다. 즉 중국 隋代와 初唐 불상의 이중착의법 중 上衣는 어깨에서부터 아래로 직선으로 내려져서 대의 밖으로 흘러나오거나 혹은 대의 안으로부터 흘러내린 형태를 주로 볼 수 있으며, 그 중 대의 안으로부터 흘러나온 상의와 그 위를 지나가는 大衣는 그 끝단이 가슴까지 올려지는 등 군위 삼존석불 등의 이중착의법과 상통한다. 예를 들면 龍門石窟 初唐 조상인 惠簡洞·敬善寺洞도 13·潛溪寺洞 등의 본존상 착의법을 살펴보면, 大衣가 가슴 아래까지 내려져서 승각기와 띠매듭 등이 모두 보이고 上衣 끝자락은 大衣 밖으로 내려진 모습이다.

군위 이래로 통일신라 석불 및 금동불에서 偏袒右肩 大衣의 이중착의법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영향이 통일신라말까지 이어짐을 조상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특히 통일신라 하대와 같은 시기인 중국의 中·晚唐期 불상의 이중착의법은 大衣가 편단우견 착의법과 오른쪽 어깨를 감싼 형태를 취한 우견편단식 착의법이 함께 보이는데, 통일신라 하대의 이중착의법은 두 가지 형태를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 송광사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 唐 전래 목불감 본존<sup>36</sup>의 착의법은 통일신라 하대의 이중착의법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단 오른쪽 어깨를 감싼 편단우견식의 대의를 입은 이중착의법은 축서사·법주사·안기동 석불좌상에서만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통일신라 하대 이중착의법은 唐 9세기의 이중착의법과 隋·初唐의 영향을 받은 군위 석불좌상에서 보이는 이중착의법의 형태를 같이 이어받고 있음을 알

<sup>35</sup> 大西修也, 「軍威石窟三尊佛考」, 『佛教藝術』 129(1983.3), pp. 37-54.

<sup>36</sup> 崔聖銀, 「羅末麗初 佛教彫刻의 對中關係에 대한 고찰」, 『佛教美術』 11(동국대박물관, 1992), pp. 105-130.



도 13 龍門 敬善寺洞 본존불상

도 14 성혈사 佛身의 부분, 경북 영주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이중착의법은 통일신라 하대 이전의 소금동불에서도 먼저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석불보다 제작이 쉬운 금동불에서 우선 시도되고 차츰 석불로 확대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II장에서 대의 안쪽의 복제를 상의로 추정하여 본 글을 진행하였는데, 통일신라 하대에 보이는 大衣 안쪽에 입은 옷의 성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상의의 형태를 보면, 양 어깨를 덮어 내렸으며 오른쪽 배면과 측면, 그리고 佛身의 앞면을 같이 살펴보면 소매가 아니라 大衣가 上衣 위를 지나감에 따라 소매형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혈사 석불좌상도 14의 지권인 위로 보이는 옷을 보면, Ω형 즉 한 장으로 연결된 재단되지 않은 옷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제2유형으로 분류한 경주 남산 삼릉계 석불좌상 16, 경주 남산 약수계 석불입상을 보면 상의가 대의 밖으로 내려졌는데, 이 옷은 소매가 아니라 한 장의 천이 내려진 형태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시기 大衣 안쪽에 입은 옷 역시 저고리 형태의 偏衫이라기보다는 재단하지 않은 한 장의 천을 걸쳐 입은 것이며, 이는 불상의 복제로 알려진 三衣 가운데 大衣 아래에 입을 수 있는 상의로 추정하고자 한다.<sup>37</sup>

## VI. 맺음말

통일신라 하대 불상 가운데 통견 착의법이라고 알고 있는 상당수의 불상이 이중착의법을 취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양 어깨를 덮고 있는 옷이 한 장의 佛衣가 아니라 두 장의 佛衣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통일신라 하대 이중착의법을 취한 불상 형태의 祖形을 중국 불상 착의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隋·初唐 불상들과 균위 석불좌상은 모두 편단우견 대의의 이중착의법을 취하고 있다. 대의가 편단우견인 이중착의법은 균위 석불좌상 이후 불상의 착의법으로 정착되었으며, 통일신라 중대 금동불을 통해 이것이 크게 유행되었고, 석불에서도 점차 이중착의법이 등장하여 통일신라 하대 이후 크게 유행하였다. 이중착의법은 배면의 조각과 함께 보면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용이한데, 통일신라 중대의 소금동불에서는 鑄型孔이 크게 자리잡고 있어서 착의법의 단서를 제공하는 의습선이 조각되지 못했으며 석불의 경우에는 배면에 아무런 조각도 하지 않았다. 통일신라 하대의 불상은 배면까지 착의법을 정확한 이해 아래에서 조성하였으나 불상 바로 뒤에 광배를 배치하는 등 배면의 조각까지 살펴보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불상 착의법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중착의법의 성격은 편단우견 대의와 偏衫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上衣과 大衣 두 장의 佛衣로 추정하였다. 즉 大衣 안쪽에 입은 옷이 저고리 형태의 偏衫이 아니라 재단하지 않은 장방형의 천인 것으로 보아 大衣 안에 입을 수 있는 上衣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sup>38</sup>

필자는 이중착의법의 성격을 상의와 대의로 추정하고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전개와 통일신라 하대의 이중착의법의 유형과 특징을 고찰하였으나, 인도에서 보이지 않던 上衣가 중국에서 부각된 기원 및 발생 이유는 논의하지 못하였다. 이는 본 글이 통

37 대의 안쪽의 복제와 상의와의 관계는 文明大의 앞의 논문(pp. 54-60)에서 자세히 밝혀졌으며, 이는 통일신라 불상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38 吉村怜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대의 안쪽의 옷을 양 어깨에 걸쳐 입은 승각기로 추정하였다. 대의 안쪽 옷에 대해서 재단하지 않은 장방형의 복제로 편삼이 아니라는 점은 본고와 일치하지만, 대의 안쪽 옷의 성격에 대해서 양 어깨를 걸친 승각기와 상의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吉村怜, 「佛像の着衣《僧祇支》と《偏衫》について」, 『南都佛敎』 81 (南都佛敎研究會·東大寺, 2002), pp. 93-120.

일신라 하대의 불상을 중심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자료의 보완을 통해서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주제어: 이중착의법, 상의, 편삼

## ABSTRACT

# A Study on The Buddha's Two-clothes-overlapped Mode of the Late Unified Shilla Period

Ju Jin-lyung

Buddha's Dress is an important part of the studies on the style of Buddha image and the drawings, because Buddha image acutely implicates the era of making Buddha image and reveals its characteristics. The two-clothes-overlapped mode (二重着衣法) is useful for examining the styl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rawings during the era that Buddha's Dress of Indian style was introduced into China and Korea.

The two-clothes-overlapped mode appeared in Buddha image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Unified Shilla, Koryo and the Chosun dynasty. It has been discussed that the two-clothes-overlapped mode differs from the covering mode (通肩着衣法), but Buddha image in the Unified Shilla has been unclearly recognized that the two-clothes-overlapped mode is the covering mode. In this paper, I intend to unravel the fact that lots of Buddha images in the late Unified Shilla period are clothed by the two-clothes-overlapped mode, not the covering mode.

The two-clothes-overlapped mode of Buddha image in the Unified Shilla differs from the two-clothes-overlapped mode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Koryo and the Chosun dynasty. In the two-clothes-overlapped mode of the Unified Shilla, Saṅghāṭī is clothed by the open mode (偏袒右肩着衣法) in a sense that Saṅghāṭī (僧伽梨, 大衣) does not cover the part of a right shoulder. This mode of clothing appeared in the stone seated Buddha of Kunwi (軍威) in the early Unified Shilla period, Saṅghāṭī of the stone seated

Buddha of Kunwi is clothed by the open mode after wearing the Saṅghāṭi on both shoulder's of the Buddha image.

The two-clothes-overlapped mode is the open mode in that Saṅghāṭi does not cover a shoulder on the right side of the Buddha image. It appeared around the Sui and T'ang dynasty period in China. Saṅghāṭi of the stone seated Buddha of Kunwi (軍威) compared with sculptures of Grotto in the Early T'ang (唐) dynasty at Long Mon Grotto (龍門石窟), is clothed by the open mode, such as the clothing mode of Buddha images in the areas of Huijiandong (惠簡洞), Jingshansidong (敬善寺洞) and Qiansisidong (潛溪寺洞). The two-clothes-overlapped mode of the stone seated Buddha of Kunwi (軍威) is not influenced by the two-clothes-overlapped mode of the Sui (隋) and T'ang (唐) dynasty, and it is the start of the two-clothes-overlapped mode of the late Unified Shilla period. On the other hand, the Buddha image in the 9th century in the T'ang dynasty of China is the open mode in that Saṅghāṭi covers a right shoulder.

In chapter II (The two-clothes-overlapped mode), the discussion on the title of Buddha's Dress is pursued. It has been considered that the two-clothes-overlapped mode has two kinds of meaning. The first one is to wear Buddha's Dress over the Pyunsam (偏衫), and the second one is to wear two sheets of Buddha's Dress. The outer garment is Saṅghāṭi, and the inner garment has been considered as either the Pyunsam or Buddha's Dress. Grounding on the theory of Henmi Baiei (逸見梅榮), "the inner garment under Saṅghāṭi" is the Pyunsam, which covers the exposed upper body of Buddha image because Saṅghāṭi is worn by the open mode. This view that "the inner garment under Saṅghāṭi" is the Pyunsam by Henmi Baiei has been a common theory until now. Another view of the inner garment is that "the inner garment under Saṅghāṭi" is Uttarāsaṅga (鬱多羅僧, 上衣), and this opinion is from old books which said that Uttarāsaṅga can be clothed with Saṅghāṭi.

The Pyunsam emerged in China in order to cover the exposed upper body of the Buddha image, and its style is to attach a right sleeve to samkakasika (僧脚崎). The Pyunsam is a Chinese clothing that has both sleeves and the front-opened hem. On the other hand, Uttarāsaṅga ga zdoes not show some parts of itself to us because it is covered by Saṅghāṭi. For example, the Buddha image in the late Unified Shilla period shows all of

the righthand backside, right lateral side and fore lefthand side of inner side of Saṅghāṭī, because Saṅghāṭī does not cover a right shoulder of the Buddha image. Uttarāsaṅga is not a coat. We can see that Uttarāsaṅga is connected to the upper hem of arms because “the inner garment” is revealed over Saṅghāṭī. Therefore, Uttarāsaṅga is not sleeved clothes, but “clothes of one sheet” not to be cut. For example, “the inner garment” of Bodhi-śrī-mudra (智卷印) Buddha image is a shape of “Ω” which “the inner garment” is flowed out of Saṅghāṭī. Thus, Uttarāsaṅga, “the inner garment” is not the Pyunsam that has both sleeves and front opened hem, and is evidently “Clothes of One sheet”.

The style of Buddha's Dress has changed in many ways during the era of being introduced from India into China, Korea and Japan, but it had the true meanings until recent period. Consequently, in this paper, it is supposed that “the inner garment under Saṅghāṭī” is clothed by the two-clothes-overlapped mode, and “the inner garment” is Uttarāsaṅga, the Sangui (上衣), which is one of three types of clothes in India. Furthermore, we can presume that two sheets of the two-clothes-overlapped mode are Uttarāsaṅga, namely the Sangui and the Saṅghāṭī. This can renew the recognition of the two-clothes-overlapped mode, that wears two sheets of clothes, among the clothing modes of Buddha image in the late Unified Shilla period. It is regrettable to be arranged only the dissemination of the two-clothes-overlapped mode in the late Unified Shilla period. I hope to examine later the origin and the cause of emergence of the two-clothes-overlapped mode.